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씨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이 죽은 것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대가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너는 어떠한 계집이 완데 장부의 마음을 둔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내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아라.”

계화가 들은 체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왈,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네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 거행 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여 왈, “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졸연히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피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박씨가 주렴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었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흑욕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피쳐 갈 것이니, 박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왈,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 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백배 사례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다)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덕 아주머니의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려구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그래도 덕은……. 우린 애아범이 그래 봐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 먹었는데.”

“이 마당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 봐서 이젠 그렇게들 안 할 거예요.”

둑길을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량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여 있었던지 용케 죽지도 않고, 스무 명가량의 사람들이 떼 지어 간다. 김씨 덕 아주머니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맥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남은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끓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굶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굶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씨 맥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함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중략)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 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 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엮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

1. (가)의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②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③ (다)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④ (다)는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과 같은 단어를 통해 실재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2.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을 담은 「박씨전」과 다음의 「임장군전」을 읽고 전쟁 체험이 소설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봅시다.

상께서 왈,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경업이 어찌 알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 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다시 말 말라.” 하시고,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항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용골대가 송파장에 결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럭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①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계화와 박씨가 등장하는 것에는 병자호란 때에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 ②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에 대해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데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 ④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 ⑤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왕대비가 불모로 가지 않게 된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3.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가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은 관군의 무능함을 허구를 매개로 조명하고 있다.
- ③ 박씨의 재주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해 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 ④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오랑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4.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로군.
- ② '갈가마귀떼'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군.
- ③ '끓주린 이리떼'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는군.
- ④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는군.
- ⑤ '벼랑을 기어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5. (나),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에서 용골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하였다.
- ②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에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했다.
- ③ (다)에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 ④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였다.
- ⑤ (다)에서 김씨 덕 아주머니는 피란 갔던 것을 걱정하는 윤씨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6.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씨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의 죽음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가)와 같은 지문은 길이가 긴 <보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런 문제 양식은 요즘에는 등장하지 않는 문학, 비문학 복합 지문 양식입니다. (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와 (다) 지문을 읽으면 됩니다.

「박씨전」은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 했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인 박씨가 실존 인물인 용골대를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직시하고 좌절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지가 생존에 몸부림치는 인물로 허구화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고,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이제 지문을 읽어봅시다.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든 너조차 죽기를 재

촉하느냐?” 용골대가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너는 어떠한 계집이한테 장부의 마음을 돋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내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아라.”

계화가 들은 채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왈,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네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 거행 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여 왈, “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졸연히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피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계화와 용골대의 대화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계화는 용골대에게 용골대의 아우가 자신의 손에 죽었는데 너도 죽기를 원하느냐며 도발하고 있고, 용골대는 이미 너희 나라와 화친을 받았으니 잔말 말고 자신의 칼을 받으라고 합니다. 두 인물이 전쟁 상황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용골대는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으라고 합니다. 김자점은 조선 인물인데 용골대의 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간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골대는 계화와 박 부인이 있는 피화당 사방에 화약을 붓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용골대 쪽이 승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사건 이해하기

용골대는 계화에게 이미 너희 나라의 화친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작품의 역사적 배경은 병자호란입니다. 조선은 병자호란 때 청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했고,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용골대는 청나라의 인물인 것입니다. (가)에서 용골대는 실존 인물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용골대는 실제로 청나라의 장수입니다.

박씨가 주렴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혹욕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되서 갈 것이니, 박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왈,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 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백배 사례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하지만 박씨가 부채로 불길을 오랑캐 쪽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오랑캐 장졸이 죽고 남은 군사들은 도망쳐버렸습니다. 용골대는 분해하며 왕대비와 세자대군이며 장안미색을 데리고 회군합니다.

박씨는 왕대비를 데리고 갈 수 없다며 재주를 부려 비를 천지를 뒤덮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얼음이 얼게 해 오랑캐 장수들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오랑캐들을 무찌르는 박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랑캐 장수들은 항복하고, 박씨는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주로 전쟁에서 승리한 박씨의 모습입니다.

(가)에서 「박씨전」은 병자호란의 패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작품 내에서 박씨의 능력으로 청나라 군대에게 승리를 거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 #작품 총평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단순히 박씨가 신이한 능력을 이용해 오랑캐를 무찌르는 작품입니다.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문이 길면 이런 작품처럼 파악해야 할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다)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덕 아주머니의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려고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그래도 덕은…… 우린 애아범이 그래 봐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 먹었는데.”

“이 마당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 봐서 이젠 그렇게들 안 할 거예요.”

뚝길을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량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여 있었던지 용케 죽지도 않고, 스무 명가량의 사람들이 떼 지어 간다. 김씨 덕 아주머니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줘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줘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덕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남은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쳐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씨 덕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함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폭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윤씨와 김씨 덕 아주머니는 피란을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피란을 안 갔다고 야단맞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씨 덕 아주머니는 쌀 배급을 주는데 설마 야단을 치겠냐며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

윤씨와 김씨 덕 아주머니는 배급을 받으러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떼 지어 가는 모습을 보고 배급이 아니라 밤사이 후퇴한 인민군과 중공군이 갖고 가지 못한 식량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가마니를 열고 그 식량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김씨 덕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식량들을 주워 담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흩어진 식량을 줌기 위해 절실하게 몸부림치는 인물들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렇게 식량을 다 주워 떠나려는 찰나, 고함 소리와 총성이 나고 윤씨가 죽게 됩니다. (가)에서 제시되었듯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결국 죽고 만 개인의 나약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중략)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 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끼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엮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 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지영은 총을 맞고 사망한 윤씨를 데리러 갑니다. 김씨 덕 아주머니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독길로 가 윤씨의 시체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 나약한 개인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작품 총평

전쟁의 비극적 상황과 희생당하는 나약한 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특별한 사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전쟁 상황에서 희생되는 모습에 주목하면 됩니다.

1. (가)의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나)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나)는 실재했던 전쟁인 병자호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병자호란은 조선의 패배로 끝난 전쟁입니다. 하지만 (나) 작품은 조선이 승리합니다.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으로 인해 허구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나)는 박씨와 계화 Vs 청의 장수인 용골대 등의 대립

구도로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③ (다)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다)는 실재했던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 내용이 전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고, 개인의 희생이라는 상흔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다)는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다)의 윤씨와 지영은 둘 다 개인으로,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약한 개인이 전쟁에서 희생당하는 모습을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⑤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과 같은 단어를 통해 실재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 (나)는 실제 청나라 장수인 '용골대'라는 단어를, (다)에서는 한국 전쟁이 배경임을 알 수 있는 단어인 '중공군'과 같은 단어를 이용해 작품 속 배경이 실재했던 전쟁임을 환기해주고 있습니다.

2.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을 담은 「박씨전」과 다음의 「임장군전」을 읽고 전쟁 체험이 소설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봅시다.

상께서 왈,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경업이 어찌 알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 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다시 말 말라.” 하시고,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향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용골대가 송파장에 결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러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①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계화와 박씨가 등장하는 것에는 병자호란 때에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 (나)에서 계화와 박씨는 청나라 장수인 용골대를 꾸짖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는 실제 병자호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중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한 이유는 병자호란 때 이러한 인물이 있었으면 하는 백성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에 대해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군.

→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에 대해 서술자가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술자 또한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기에 슬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데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되었겠군.

→ (나)와 「임장군전」 모두 용골대는 적군 장수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 때문에 적군 장수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겠군.

→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 장수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과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박씨는 천시를 생각해 오랑캐 장수들을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천시는 하늘의 도움이 있을 시기를 말합니다. 이런 시기가 있을 것이기에 용서하겠다는 것이지, 조선 백성들에 대한 추모 의식이 아닙니다. 「임장군전」의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은 전쟁에서 이긴 용골대의 모습을 그린 것이지, 조선 백성들의 추모 의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⑤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왕대비가 볼모로 가지 않게 된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 (나)에서 박씨는 용골대에게 승리합니다. 그렇게 왕대비를 구출하게 됩니다. 이는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임장군전」은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용골대가 왕대비를 돌려보냅니다.

3.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이 부분은 전쟁 상황에 불이 난 상황과 백성들이 청나라에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가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은 관군의 무능함을 허구를 매개로 조명하고 있다.

→ 조선 도원수 김자점은 조선 원수임에도 용골대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충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군의 무능함을 조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박씨의 재주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해 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 박씨가 재주를 부려 오랑캐 장수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패전의 고통을 박씨라는 허구적 인물을 통해 위로받으려는 의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박씨는 오랑캐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라는 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오랑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용골대가 박씨의 재주 때문에 장졸들이 죽은 것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능력이 없어 장졸들이 죽음을 탄식하는 것이지, 죽음의 책임을 박씨에게 돌리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4.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로군.

→ 윤씨는 ‘식량’을 얻으려다가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전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는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현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갈가마귀떼’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군.

→ 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어 자루에다가 식량을 주워 담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식량을 줍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끓주린 이리떼’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는군.

→ ‘끓주린 이리떼’는 전쟁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량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비유한 부분이지,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④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는군.

→ 피에 젖은 ‘쌀자루’는 윤씨가 총을 맞고 죽어 그 피가 쌀자루에 묻은 모습입니다. 이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개인에게까지 끼치는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⑤ '벼랑을 기어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 지영은 총에 맞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나),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④**

① (나)에서 용골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하였다.

→ (나)에서 용골대는 먼저 화살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한 발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게 됩니다. 선후관계가 뒤바뀐 선지입니다.

②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에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했다.

→ (나)의 앞부분에 용골대가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기에 너희도 우리나라의 신첩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후 박씨는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박씨가 공격할 때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다)에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 (다)의 지영은 죽은 윤씨를 데리고 오기 위해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가 윤씨를 업어 오게 됩니다.

④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였다.

→ (다)에서 윤씨가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니라 한강 모래밭입니다. 완전히 틀린 선지네요.

⑤ (다)에서 김씨 댁 아주머니는 피란 갔던 것을 걱정하는 윤씨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 (다)에서 윤씨는 피란 안 갔다고 야단을 맞지 않을 거냐며 걱정하고 있고, 김씨 댁 아주머니는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겠냐며 윤씨를 안심시키고 있다.

6.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①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인물의 회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물 간 갈등도 작품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②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시간적 배경을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인물들이 성격이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③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인물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옳으나, 이를 관념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④ 대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 인물 간 대화는 등장하지만 이 대화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대화는 아닙니다.

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식량을 발견한 인물들이 가마니를 열고 쌀을 퍼내고 하는 등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물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식량을 퍼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